

'1000대 기업' 광주·전남 22곳 뿐

건설사 줄줄이 퇴출…전년보다 6곳 줄어

100대 기업엔 2년 연속 현대삼호重 1곳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28개 사보다 무려 6개 사가 줄어든 것이다. 삼위 100대 기업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현대삼호중공업 단 1곳 뿐이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기업정보서비스 '코참비즈'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광주·전남 기업은 22개사로 나타났다. 광주 기업은 8개사, 전남은 14개사였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28개 사)보다 무려 6개 사가 줄어든 것으로,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3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48%)에 그쳤다.

광주·전남에서 매출액 1위 기업은 4조8286억원을 기록한 현대삼호중공업(전국 84위)이 차지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역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랭크됐다.

2위(「123위」)는 금호타이어로 3조 2479억원, 3위(「181위」) 한국바스프 1조9819억원, 4위(「206위」) 금호산업 1조6877억원, 5위(「228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1조50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어 6위(「264위」) 금호파인비화학 1조2650억원, 7위(「294위」) 광주은행 1조1113억원, 8위(「391위」) 호반건설 7918억원, 9위(「470위」) 엘지엠엘에이 6384억원 등이 전국 500대 기업에 들어갔다.

반면, 호반건설은 제외한 남양건설·금광기업·우미건설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은 1000대 기업에서 대거 탈락했다.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대유 에이텍(「715위」)과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주택(「900위」), 여수국가산단 내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743위」)와 메타넥스코리아(「976위」) 등 4개사는 이번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매출 순위 상승 폭은 호반건설이 가장 두드러졌다.

호반건설은 2009년 758위(3010억 원)에서 2010년 482위(5502억원)로, 이번에 다시 391위(7918억원)로 2년 새 무려 367계단 상승했다. 여기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한 계열사 호반주택을 합하면 매출액이 1조원(1조1108억원)을 넘어서었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도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하며, 10계단 뛰어올랐다.

반면, 호반건설은 제외한 남양건설·금광기업·우미건설 등 지역 대표 건설사들은 1000대 기업에서 대거 탈락했다.

엘지다우플리카보네이트와 에보 닉카본블랙코리아·KPK화인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 한국알프스·연호 전자 등 전자업체, 부국철강 및 금호

■ 2011년 매출액1000대 기업 중
광주·전남 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광주·전남	회사명	매출액
1	84	현대삼호중공업(주)	4,828,651
2	123	금호타이어(주)	3,247,967
3	181	한국바스프(주)	1,981,901
4	206	금호산업(주)	1,687,757
5	228	엠코테크놀로지	1,502,796
6	264	금호파인비화학(주)	1,265,073
7	294	(주)광주은행	1,111,378
8	391	(주)호반건설	791,884
9	470	엘지엠엘에이(주)	638,421
10	515	백제9품(주)	585,905
11	547	대한조선(주)	527,568
12	565	(주)해양도시가스	511,800
13	614	조선내화(주)	465,542
14	648	(주)에스엔씨	447,148
15	676	엠피씨울전선(주)	425,183
16	715	(주)대우아이텍	402,877
17	743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주)	389,214
18	802	성장이엔씨(주)	364,531
19	834	아이씨엔개발(주)	348,893
20	846	남선석유(주)	345,182
21	900	(주)호반주택	318,969
22	976	(주)메타넥스코리아	296,848

〈자료: 대한상의〉

종합금융 등 철강·금융 업종의 지역 대표 기업들도 뛰어나게 1000대 기업에서 밀려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도 밤샘근무 사라지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노동'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40여 년만에 '밤샘노동'이 폐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기아차 임금 및 단체협약의 최대 쟁점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밤샘노동을 폐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다.

현대차 합의로 주간 2교대제 도입 급물살

3월 시범실시 호응…생산량 감소가 쟁점

그러나 최근 현대차 노사가 내년 3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기아차 노사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에서는 3일 현대차 조합원총회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통과된다면, 기아차도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할 경우, 지난 1973년 회사를 설립한 지 40여 년만에 밤샘근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기아차 노사는 큰 틀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공감했다. 하지만 도입 시기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여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심야 근무를

것이다. 노조 측은 "밤샘근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노조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량도 자연히 줄어든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통상 하루 약 200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그러나 주간2교대 시범시행한 결과, 하루 생산량이 300대가량 줄어 약 1700대를 생산했다.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현대차 노사도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대안을 놓고 노노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노사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합의에 따라 기아차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높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사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간2교대제를 본격 도입하면 협력업체와 여타 제조업체에서도 밤샘근무를 없애는 근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근로를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출근시간과 식사, 교대 시간을 조정해 밤샘근무를 없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것이다. 노조 측은 "밤샘근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노조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량도 자연히 줄어든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통상 하루 약 200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그러나 주간2교대 시범시행한 결과, 하루 생산량이 300대가량 줄어 약 1700대를 생산했다.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현대차 노사도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대안을 놓고 노노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노사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합의에 따라 기아차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높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사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간2교대제를 본격 도입하면 협력업체와 여타 제조업체에서도 밤샘근무를 없애는 근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근로를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출근시간과 식사, 교대 시간을 조정해 밤샘근무를 없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애플 갤럭시S3도 소송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2종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대상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전략에 짧은 불이익이 커졌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리레이트 홍보관벽에 부착된 '갤럭시S3' 광고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中企 9월 경기전망 막구름

전망지수 5개월 연속 하락 1년래 최하위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9월 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가 5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최근 1년간 최하위를 기록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 제조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익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80.0으로 전달(81.1)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 4월 86.1 이후 5개월 연속 떨어지며,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용수준(89.0→88.7)은 기준치에 상당부분 미달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경영 어려움으로 내수부진(70.9%)을 가장 많이 봤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9.8%), 원자재 가격상승(35.9%), 인건비 상승(35.0%), 업체 간 과장 경쟁(32.0%), 인력확보 곤란(26.2%), 자금조달 곤란(25.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기업·소상공인 91곳 태풍피해

광주·전남중기청 협장상담 복구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잊달이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는 91개업체,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기업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목포와 인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 달 '출동 협장' 속으로 '상담회'를 우선 개최하기로 했다.

〈출동 협장 속으로' 상담회는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체 자금사정 갈수록 악화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 응답업체수보다 부정 응답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71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8월 광주·전남지역 기업 자금사정 조사' 결과 기업자금 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84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85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지만 비제조업은 86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자금수요 BSI는 106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자금조달 BSI는 95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9월 기업자금사정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6으로 전달과 같았다.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509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 숫자
12 25 29 35 42 43	24
등 위	당첨금 원
1	6개 숫자 일치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	5개 숫자 일치
4	4개 숫자 일치
5	3개 숫자 일치